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9년 교회표어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부활절 후 제5주일】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오소서, 평화의 임금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41. 내 영혼아 주 찬양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만물에 생명의 기운이 넘쳐나는 신록의 계절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쁘고 분주한 일상으로 웅색해졌던 우리의 마음을 오월의 하늘처럼 넓게 펴주십시오. 염려와 걱정으로 어두워졌던 마음을 밝고 맑게 해주십시오. 부질없는 생각들로 들떠있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주시고 나무들 사이를 시원하게 오가는 봄바람처럼 사람들 사이에 생기를 불어넣으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생명의 길은 좁고 험악하여 찾는 이가 적다 말씀하셨습니다. 진정, 진리의 길을 찾아 나선 이들이 모범으로 삼을 만한 이가 참으로 적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직분의 귀중함을 잃어버리고 사리사욕에 빠져 쉽게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일삼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백성들이 일어나 하늘나라를 가리키는 이정표로 우뚝 서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요14:27 인도자

♠ 교 독 문 79. 요15장 다함께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다함께

대표기도 I. 윤 윤 선생 II. 한완식 장로

응 답 송 찬양대

찬 양 246(통221).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다함께

성경봉독 I. 요6:41-51 염철민 학생

..... II. 슄8:13-17 임주빈 집사

찬 양 찬양대

말 씬 I. 먹이가 된 사람들 김재홍 목사

..... II. 복 받는 사람의 표본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함께

- 찬 송 437. 하늘 보좌 떠나서 다함께
- ♠ 봉 헌 317(통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 공동체 소식 인도자
-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그릇됨의 표본이 되지 마십시오. 진실과 자유, 사랑의 표본이 되어 사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다 함 께 : 아멘. 이기심과 욕심에 쉽게 이끌려 바른 길을 선택하며 살지 못했던 지난날을 반성합니다. 우리의 삶이 자신만의 것이 아니요, 서로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보다 신중하고 조심스런 발걸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 ♠ 찬 양 <주의 기도>..... 다함께
-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동호회	성서로 배우는 평화 / 김기석 목사
	기도 : 노순옥 권사

다음 주 예 배 위 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성운 전도사 김기석 목사	안 현 학생 윤석철 장로	인도자 임주빈 집사

5월	영접위원	한완식 조문규 박규석 안정숙 진정숙 권미정
	헌금위원	방문성 정영선(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제자를 위해 눈물 흘린 적이 있는지!

유학 시절에 쓰던 자료들 사이에서 성경책 한 권을 발견했다. 거의 새 것과 다름없었는데, 앞에는 “영희에게 브루닉 신부가.”라는 서명이 있었다. 오래 전 내가 유학을 떠나기 바로 전 날, 브루닉 신부님이 내게 선물로 주셨던 성경책이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이름, 브루닉 신부님은 나의 대학 스승님이다. 아니, 단지 스승을 넘어 내 삶의 은인이시다. 신부님이 안계셨으면 나는 아예 대학에 다니지도 못했는지 모르니까.

아직 우리나라에서 신체장애에 대한 사회인식이 전혀 없던 70년대 초반, 내가 대학에 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초등학교 졸업 후 중,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었으니, 대학은 말할 것도 없었다. 다행히도 내 학교 성적은 좋았고, 나는 꼭 대학에 가고 싶었다. 내가 고3이 되자 아버지는 여러 대학을 찾아다니시며 입학시험을 보게 해 달라고 구걸하듯 사정하셨지만, 학교측은 어차피 합격해도 장애인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했다.

아버지는 당시 서강대학교 영문과 과정님이셨던 브루닉 신부님을 찾아가 제발 시험만이라도 보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다. 신부님은 의아하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말씀하셨다. “무슨 그런 이상한 질문이 있습니까? 시험을 머리로 보지 다리로 보나요. 장애인이라고 해서 시험보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반문하셨다고 한다. 아버지는 두고두고 그때 일을 말씀하셨다. “마치 갑자기 바보가 된 느낌이였다. 그렇지만 그렇게 기쁜 바보가 어디 있겠느냐!”고…….

약간 불그스레한 얼굴에 순진하고 맑고 큰 눈, 늘 만면에 미소를 띠시던 신부님은 1학년 전공필수인 영문학 개론을 강의하셨다. 그때 나는 서양문학 최고의 고전은 성경과 그리스 로마 신화이며, 성경에 관한 지식이 없이는 영문학을 공부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다. 신부님은 문학작품을 마치 무슨 모노드라마를 하듯이 온몸으로 연기하시며 강의하셨다. 교실 밖에서 나를 보시면 신부님은 두 팔을 벌리면서 “마리아(나의 세례명), 마리아, 사랑하는 마리아…”라고 당시 유행하던 패티 김의 노래를 부르곤 하셨다.

신부님은 성품이 더할 나위 없이 착하고 온화한 분이셨지만 나는 신부님이 불같이 화를 내시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당시 서강대학교에서는 체육이 대학4년 내내 교양 필수과목이었는데, 담당이신 고 교수님은 내게 그 과목을 면제해 주시지 않고 체육관까지 와서 견학을 해야 점수를 주겠다고 하셨다. 수업이 있는 본관에서 노고산 밑의 체육관까지는 꽤 거리가 멀고 부분적으로 비포장도로라 사실 내게는 그곳까지 가는 것 자체가 “체육”을 넘어 에베레스트 등정보다 더 힘들었다.

게다가 비나 눈이 올라치면 문자 그대로 악전고투였다. 그러나 고 교수님은 그렇게 힘들게라도 견학을 하고 페이퍼를 써내야 겨우 낙제점수를 면한 D를 주곤 하셨다. 한번은 소나기가 오는 날 체육관으로 오다가 비포장도로에서 넘어져 진흙투성이가 된 나를 보시더니 비 오는 날은 오지 않아도 결석으로 치지 않겠다고 하셨다. 그러나 대학 3학년 되던 해 여름, 일찍 찾아온 장마 때문에 세 번 결석한 내게 교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잊으시고 내게 가차 없이 F를 주셨다. 나의 충격은 컸다.

교수님에 대한 원망, 억울함, 부당함, 그리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운명 때문에 “F”라는 굴욕적인 점수를 내 성적표에 담게 되었다는 사실이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었다.

나는 당시 영문과 과장님이시던 브루닉 신부님을 찾아갔고, 내 이야기를 들으시다가 신부님은 갑자기 벌떡 일어나셨다. 너무나 화가 나서서 얼굴은 빨개지고 말까지 더듬으셨다.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가, 그건 네 잘못이 아닌데…….” 그리고 나는 그때 분명히 보았다. 신부님의 눈에 고인 눈물을. 이제 20년이 흘렀고, 나는 2002학번 새내기들에게 그때 신부님이 담당하셨던 영문학 개론을 가르친다. 알량한 체면 때문에 나는 학생들 앞에서 신부님처럼 그렇게 재미있는 모노드라마를 연출하며 가르치지 못하지만, 오랜만에 신부님을 기억하며 새삼 생각한다. “삶의 교통순경”인 문학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나는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제자들을 “지식과 사랑의 욕심꾸러기”로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단 한 번이라도 진정 제자를 위해 눈물 흘린 적이 있는지……. 먼 훗날 지금 내가 가르치는 많은 학생 중에 누군가 단 한 명이라도 지금 내가 브루닉 신부님을 기억하는 것처럼 나를 기억해 줄는지…….

꿀벌의 무지

꿀벌은 몸통에 비해 날개가 너무 작아서
원래는 제대로 날 수 없는 몸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꿀벌은 자기가 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당연히 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열심히 날갯짓을 함으로서
정말로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중략)

나는 꿀벌과 같이 그냥 무심히 날갯짓을 한다.
그러므로 나의 글은 재능이 아니라 본능이다.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말보다는 마음속에 있는 말을
고르지도 다듬지도 않고 생긴 그대로 투박한 글을 옮긴다.(중략)

재능도, 재주도 없으면서 ‘꿀벌의 무지’만으로 쓴 글들을
남에게 보인다는 것은 참으로 어불성설이지만,
그래도 스스로 날지 못하는 줄도 모르고 무작정 날갯짓을 하기 시작한
나의 무지와 만용에 스스로 갈채를 보낸다.
못한다고 아예 시작도 안하고, 잘 못한다고 중간에서 포기했다면
지금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 장영희 에세이 ‘내 생애 단 한 번’ 중에서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김근종 정옥영 김용길 최영혜 김윤수 박상호 김정섭 김훈동 유경순
박병구 김정애 임주빈 최현옥 조병주 조관행 홍선희 정재수 이희자

월정헌금:

고속이 권미정 김남중 오복순 박준규 서지영 윤주원 최윤선 이갑재
이봉배 이재구 황선희 전영자 김문자 배부레 유지은 이경남 이현순
문홍일 김영순

감사헌금:

황경순 김남홍 선우영 김인걸 문영혜 정미경 안홍숙 한훈식 권채영
박병구 왕성환 강순배 신성은 권미정 전성오 문복순 최현선 김태훈
김도연 박창운 허정윤 윤석철 장혜숙 김순복 전영웅 강미선 한지혜
한준혜 이동천 무명4

녹색꿈 헌금:

김주경 이동천 김남홍 선우영 김주희 김주현 백혜숙 한훈식 권채영
장재영 김재영 무 명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장혜숙	박성실	나들이	노봉임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나들이	김영한
안디옥	임정자	임정자	나들이	정복순
가나안	문영혜	이명희	신영신	김진경
갈릴리	안정숙	진정숙	진정숙	최희영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나들이	박홍재
시온	박효선	허정윤	홍복선	김정애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최숙화	권미정
에베소	이순정	김금순	오복순	이봉옥
빌립보	이형숙	권미숙	나들이	김필순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정현주	임수연
나사렛	정영선	백혜숙	정영선	김희우
갈라디아	유경순	김명희	나들이	이현숙
고린도	이영란	이영란	나들이	방극숙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나들이	박혜경

■ 교/회/소/식 /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스승의주일** : 오늘은 스승의 은혜를 생각하는 스승의주일입니다. 교사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 **동호회** : 오늘 오후 집회는 동호회로 모입니다.
3. **웨슬리회심기념성회** :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회심 271주년을 기념하는 중구용산지방 연합집회(강사: 조재진목사)가 5월 17일부터 20일까지 이태원교회에서 열립니다. 오전 집회는 10시 30분, 저녁집회는 7시 30분에 열립니다.
4. **예수포럼** : 한국기독교연구소에서 주최하는 예수포럼이 5월 18일(월) 오후 6시에 청파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강사는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인 이희수 교수입니다.
5. **신앙실천** : 인생을 인도하시고 희망을 주셨던 선생님을 찾아가 인사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 식당 봉사 : 나사렛 속 (다음 주 : 나사렛 속)

* 설거지 봉사 : 권혁신 김기성 (다음 주 : 곽상준, 최경미)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